



4면

'전투력 향상을 위한 장병 그린복지 실현'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음 10월 22일) 제3630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4개 특별자치시·도, 자치분권 강화 연대·협력

(전북·제주·세종·강원)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

특별자치 한계점 진단... 지방분권 발전방향 모색

김관영 지사 "고도의 자치권 이루기 위해 힘 모으자"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제주·세종·강원 4개 특별자치시·도는 21일부터 22일까지 제주 선호텔에서 개최하는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이하 포럼)'을 통해, 4개 시·도의 성공적인 지방분권 모형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첫발을 내딛는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대표회장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하 협의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이틀간 '지방분권, 지역의 힘으로 더 나은 내일을' 주제로 국내·외 지방자치 전문가를 초청, 해외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의 지방자치와 특별자치의 한계점을 진단함으로써 지방시대에 걸맞은 지방분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이번 포럼은 △개회식, △강연 및 대담, △세션별 주제 발표 및 토론,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며, 21~22일 이틀간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치분권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도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개회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부시장, 이명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부 의장을 비롯한 제주·세종 특별자치시·도의회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이탈리아 남티롤(Ead of center for Autonomy, Marc Roggla) 및 스위스(강원대 이광훈 교수)의 지방자치 사례를 소개하고, 조용호 변혁법제정책 연구소 대표를 좌장으로 해외 지방자치분권에 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열리는 2개 세션에는 국내 학계 인사들이 참여해 △한국의 지방자치 현주소와 방향 설정, △지방시대 성과와 과제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세션 1에서는 건국대 이항수 교수(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입법 확대)와 카톨릭대 박석희 교수(지방재정의 현실과 자주재정권 추진 전략)가 발제하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성규 교수를 좌장으로 4명의 참가자들이 한국의 지방자치 현주소와 방향 설정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세션에서는 박재희 지방자치분권연구 센터장(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이 발제한다. 아울러, 제주·세종특별자치시·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을 토론자로 초청해 박기관 지방시대위원회 자치분권위원장을 좌장으로 지방시대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다음날 오전 2개 세션에서 △주민자치 발전방향 모색, △지방시대에 걸맞은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선호텔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이승원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및 특별자치시도협의회장이 퍼포먼스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세션 3에서는 제주대 이재섭 교수(한국 주민자치의 현실)와 중앙대 전상직 교수(주민자치의 발전방안)가 발제하고, 송실대 고문현 교수를 좌장으로, 4명의 참가자들이 주민자치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세션 4에서는 충남대 김찬동 교수(풀뿌리 민주주의의 소생을 위한 지방행정 체제 개편)와 송실대 배귀희 교수(우리나라와 영국의 행정체제 개편과 영국의 행정체제개편 비교연구)가 발제하고, 부경대 하용훈 교수를 좌장으로, 4명의 참가자들이 지방시대에 걸맞은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으로 이혜인 파인드 경영연구소의 대표가 사회로 나서 '우리마음

이야기: 지방자치의 미래를 말한다'를 주제로 4명의 발표자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다. 전북 관련 인사로는 이진하 임실치즈마을위원장도 참여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네 곳이 시기는 다르지만, 같은 바람을 가지고 특별자치시·도로 출범했다. 특별자치시·도가 지방분권의 모범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4개 특별자치시·도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한 목소리로 뜻을 모아 새로운 지방시대를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포럼 시작 전 협의회는 행정협의회 전환 경과보고, 대표회장 이임 등을 위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7월 운영규약 제정 이후, 4개

특별자치시·도는 협의회 법정협의 회 전환을 위해 지방의회 보고, 운영규약 고시 등 관계법령에 따른 구성절차를 밟았다.

법적 행정협의회 전환으로, 지역간 협력과 통합을 촉진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협의회 출범 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오영훈 도지사를 첫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으나, 임기는 올해 말까지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운영규약에 따라 내년부터는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년간 대표 회장을 맡게 될 예정이다. 김 지사를 비롯한 3개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회장을 맡는다. /이만호 기자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방문객 만족도 전국 최상위

전북 서해안(고창·부안) 세계지질공원이 2024년도 전국 지질공원 만족도 조사에서 15개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하며 우수성을 입증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실시한 이번 조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15개소의 세계·국가지질공원을 방문한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북 서해안 지질공원은 관계자 친절도, 탐방로 정비 상태, 방문 추천 의향 등에서 최고 평가를 받으며, 전반적 만족도와 재방문 의향에서도 상위권에 올랐다.

이번 성과는 '전북 지질공원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지질명소와 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 관계자 역량 강화, 신규 탐방 프로그램 개발 등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다. 이를 통해 전북 서해안 지질공원은 탐방 서비스 품질을 높이며 전북 생태관광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질공원 방문객 유치와 체류 인구 증가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북 생태관광광지(12개소) 및 삼천리길(약 1,038km/조성 중)과 연계한 체류형 탐방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탐방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질공원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탐방로와 지질명소의 유지·관리에 힘쓰는 등 '다시 찾고 싶은 지질공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서해안 지질공원의 성과를 기반으로 진안·무주와 고군산군도 지질공원에서도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한국 유학 새로운 모델 제시 '첫걸음'

전북대, 태국 사립 랑싯대서 '제1호 JBNU 국제센터' 설립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해외 대학에 '제1호 JBNU국제센터'를 설치, 유학생 5천명 유치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21일 전북대에 따르면 양오봉 총장과 조희남 국제처장은 20일 태국 랑

싯대학교를 찾아 첫 번째 해외대학 국제센터인 '랑싯 JBNU 국제센터' 설립 현판식에 참석해 센터의 첫 출발을 기원했다.

이날 문을 연 '랑싯 JBNU 국제센터'는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및 유학 정보 제공 등 유학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맡는다. 이는 전북대가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해 추진해 온 유학생 유치 전략의 핵심으로, 향후 해외 주요 대학에 국제센터를 확장 설치해 유학생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센터 설립은 아시아 지역에서 전북대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동시에 한국 유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양오봉 총장은 "태국 최고의 사립 명문대학으로 평가받는 랑싯대학교와의 협력은 전북대 국제화 전략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랑싯 JBNU 국제센터가 태국 청년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 설립을 적극 지원해 준 랑싯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센터를 계기로 양 대학 간 학문 및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 20일 태국 랑싯대학교에서 열린 '랑싯 JBNU 국제센터' 설립 현판식.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